

디지털 경제강국을 위한 혁신금융 Player 육성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일 시 2020. 7. 13. (월)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회입법조사처

목 차

I. 벤처투자의 현황 및 한계

II. 코로나 시대, 벤처투자의 “위기와 기회”

III.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I 벤처투자의 현황 및 한계



벤처투자의 현황 및 한계 : 현황

한국은 유니콘 기업 총 11개로, 세계 6위를 기록함

*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국가별 유니콘 기업수 (2020년 3월 기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한국
기업수	220	108	24	21	12	1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 5. 14.자 보도자료)

벤처투자의 현황 및 한계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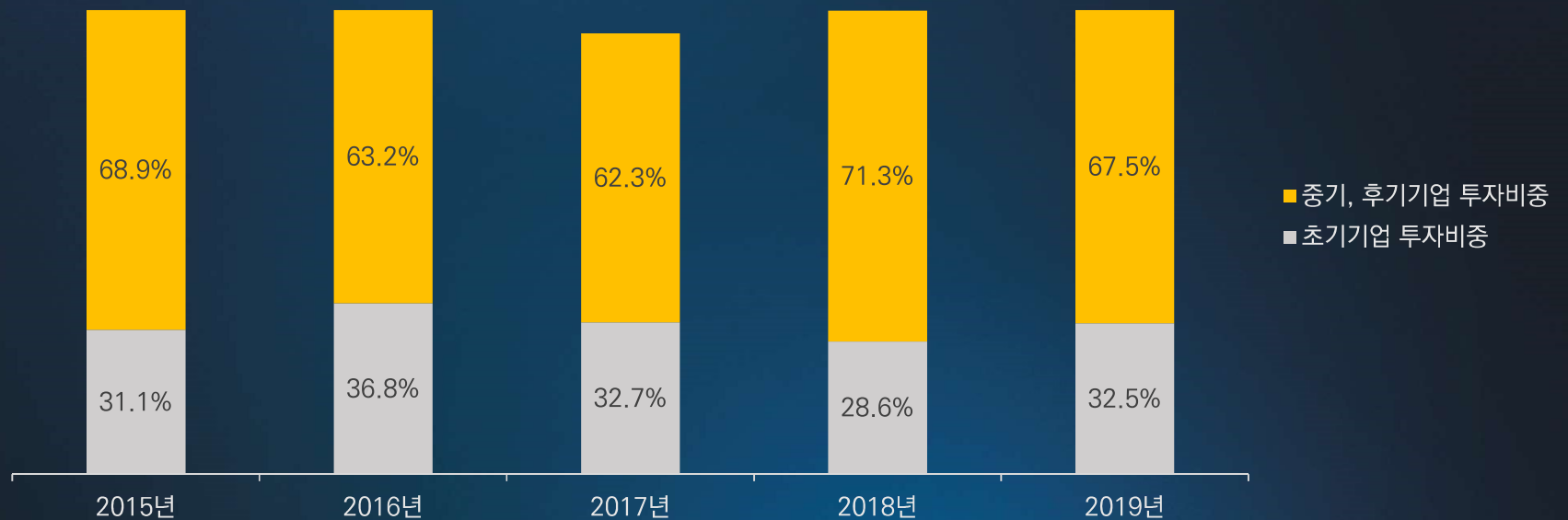
벤처투자 규모는 최근 5년간(2015~2019) 꾸준히 증가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 1. 29.자 보도자료)

벤처투자의 현황 및 한계 :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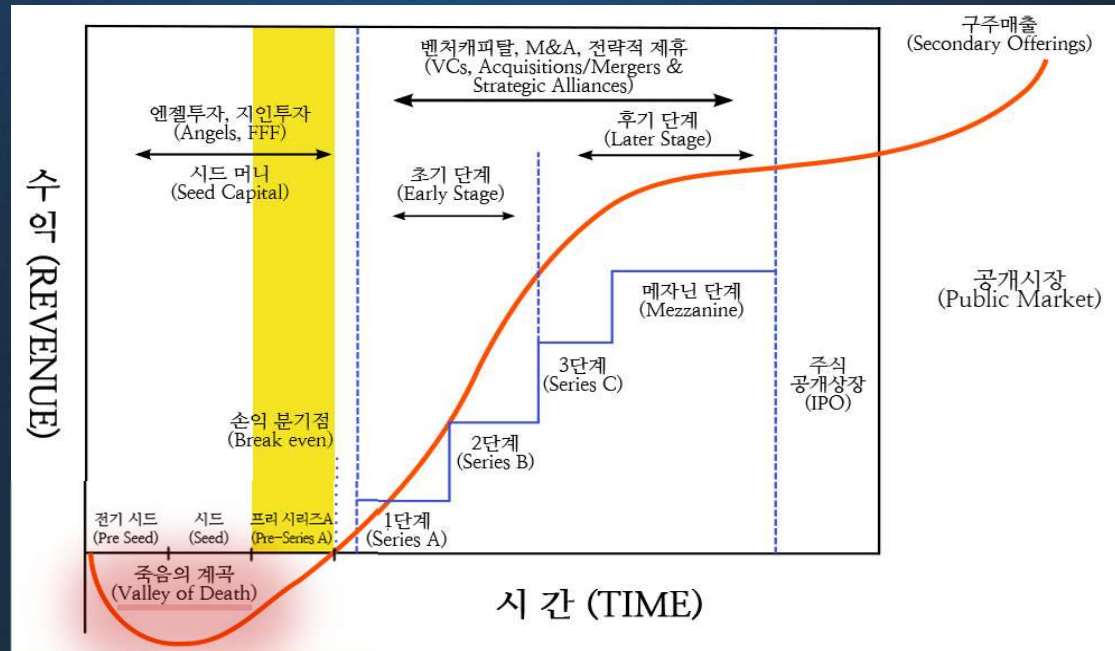
벤처기업 투자 비중은 업력 3년 이상의 중기·후기 기업에 집중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 1. 29.자 보도자료)

벤처투자의 현황 및 한계 : 한계

[벤처·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사이클]



(자료: Cardullo, "Technological Entrepreneurism : Enterprise Formation, Financing and Growth")

창업 초기(3년 이내) 기업이 자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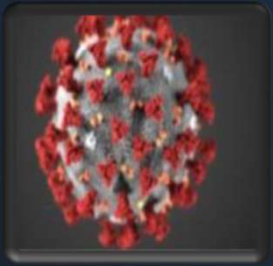
II 코로나 시대, 벤처투자의 “위기과 기회”



코로나 시대, 벤처투자의 “위기과 기회” : 위기

UN,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년대비 3.2% 하락 전망

(IMF, COVID-19 하반기 진정 가정 하에 미국 -5.9%, 유로존 -9.1%, 한국 -1.2% 전망)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30%로 치솟고 GDP는 50% 급감할 수 있다.”

(제임스블라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총재, 2020.3.22)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비드 취 이코노미스트 2020.3.23.)

(자료 : 삼정 KPMG,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COVID-19 Business Report, 2020.)

코로나 시대, 벤처투자의 “위기와 기회” : 위기

2020년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함

업력별 벤처기업 현황 (2020년 3월 기준)

	예비벤처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기업수(개)	102	6,718	12,542	5,569	9,092	3,193	37,216
비율(%)	0.3	18.0	33.7	15.0	24.4	8.6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0. 5. 4.자 보도자료)

코로나 시대, 벤처투자의 “위기와 기회” : 기회

2020년 1분기 벤처투자 중 ICT, 바이오·의료 업종은
전년동기 대비 각 24%, 33.9% 증가함

	ICT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합계
	제조	서비스								
2019년 1분기 (억원)	290	1,686	447	226	1,700	880	204	1,634	721	7,789
2020년 1분기 (억원)	293	2,091	306	384	2,276	365	165	962	621	7,463
증감률(%)	1.0	24.0	△31.5	69.9	33.9	△58.5	△19.1	△41.2	△13.9	△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 5. 14.자 보도자료)

최근 3년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는 0.8조원(2017년)에서 1.7조원(2019년)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의 고용은 약 2.7만명에서 약 4.7만명으로 늘어남

III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혁신금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창업, R&D, 사업화 등 일련의 혁신 과정과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융자원을 공급하는 시스템



혁신금융

- 정보의 비대칭성 혁신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 높은 위험성 창업, R&D, 제품 개발 및 판매 등 일련의 혁신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평가, 관리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산재
- 투자의 불가분성 새로운 기술의 제품화·서비스화, 판로 개척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

혁신금융을 활용한 벤처기업 지원 방안

- 1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 2 크라우드 펀딩 개선
- 3 자산 유동화 등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혁신금융을 활용한 벤처기업 지원 방안

- 1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 2 크라우드 펀딩 개선
- 3 자산 유동화 등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기술금융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

(혁신금융은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단 측면에서 ‘금융수단의 혁신’의 의미로도 사용됨)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문 제 점

공공 주도 웹 기반 플랫폼의 한계

기술거래, 기술평가 관련 플랫폼 명칭(운영주체)	소관부처
NTB 기술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KDB 기술거래마트(산업은행)	산업부
Tech-Bridge(기술보증기금)	중기부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미래 기술마당(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기정통부
스타밸류(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기정통부
국방기술거래장터(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 민간 시장에 비하여 효율성 및 자율성 저조
(정책금융기관의 보수적 운영 등)
- 플랫폼 간의 유기적 연계·협력이 미흡하여
기술 수요자에게 칸막이로 작용함

(자료: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Vol. 32, 2019.)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문 제 점

정부 주도 융자형 기술금융 시장의 구성에 따른 민간 주도 생태계 미흡

구 분	공급주체	기술금융 방식	규모(2018년 기준)
간접금융	공공	기술평가보증	22.3조 원
	민간	기술신용대출	163.7조 원
직접금융	공공	모태펀드	4.3조 원
	민간	벤처캐피털	9.5조 원
		엔젤투자	2,401억 원

(자료 : 신종원, '혁신금융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KIET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20-04, 2020.)

개 선 방 안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공공 주도 플랫폼의 비효율성 극복,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 유도)

- 온라인 정보와 오프라인 교류를 연계한 플랫폼을 설계할 필요 있음
- 평가 기관별 기술평가 결과나 기술거래 실적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공개할 필요 있음
- 난립하는 공공부문의 플랫폼 일원화 등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개 선 방 안

엔젤투자 및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활성화

-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홍보·교육 확대,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확충
- 운영 현황 및 투자회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 구축
-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해외 선진 엑셀러레이터 사례)



참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2월11일, 2020년 8월12일 시행)됨으로써
투자조합(벤처펀드) 운영 주체에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포함

혁신금융을 활용한 벤처기업 지원 방안

- 1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 2 크라우드 펀딩 개선
- 3 자산 유동화 등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문 제 점

- 2016년 1월 클라우드 펀딩 도입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1,128억원을 조달함
-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엄격한 운용 규제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움

투자자에 소외받는 클라우드펀딩... 증권사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임현호 기자 | 승인 2016.07.21 17:58

규제에 막혀 낯선 제도 홍보수단은 오로지 홈페이지 뿐

한풀 꺾인 증권형 클라우드펀딩..."규제 완화 급해요"

2016년 07월 15일 (금) 오후 03시 49분 34초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 클라우드 펀딩 개선

개 선 방 안



발행기업 확대(비상장 중소기업 포함),
발행한도 상향(연간 15억원 → 30억원 주식만 적용) 등 추진 예정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플랫폼 관리자들에 의한
사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활용 방안

- 후속 투자 등의 조건 발생 시 선투자자가 현금 또는 주식을 받음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유출 부담 완화 &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 판단 부담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엑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SAFE 도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2월11일, 2020년 8월12일 시행)됨으로써
법률에 규정함 → 시행령 제정을 통해 조속히 구체화 시킬 필요 있음

혁신금융을 활용한 벤처기업 지원 방안


- 1 민간 주도의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 2 크라우드 펀딩 개선
- 3 자산 유동화 등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문 제 점

-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기초로 자금 조달(금융기관 대출의 95. 7%),
→ 부동산 등 자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기술 유동화 활용은 저조한 상황임
- 등록 유동화의 경우, 등록 및 증권 발행에 상당한 기간(15~30일) 소요,
자산 보유자 자격요건(BB등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용 불가
-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 증권의 기초적인 정보 공개도 미흡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함

혁신금융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 : 자산 유동화 등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개 선 방 안

-  금융위원회 등록 유동화에 관하여 자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록절차 간소화, 대상 자산 정의 재정비, 다수 자산 보유자 구조 도입 등 추진 예정
- 기술자산유동화 정의* 및 기술자산유동화 촉진 사업 실시에 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촉진 사업 실시 방안을 마련 필요
 - * 기술 등 및 기술 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
- 다수 자산 보유자 구조 도입(지식재산권 보유 혁신기업들의 참여) 시 이익충돌(경쟁관계에 있는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있어서의 이해상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방지 방안 모색 필요
- 비등록 유동화 시장의 경우 유동화 자산 실사 및 외부 평가기관 실사 보고서 비치 의무화, 정보제공 플랫폼을 도입하여 투명성 제고

개 선 방 안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 정부는 2020년 3월 20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출, 2020년 4월 29일 소관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개정 방안
 - 일괄담보제 도입 :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지식재산권·동산·채권의 가치를 통합하여 담보권 설정 (단, 일괄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책 필요함)
 - 담보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담보물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 있음
 -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담보권 존속기간 5년 폐기 검토 등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4일)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 핵심 주역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 2) 이윤준, 권기환, ‘진짜 유니콘을 키우자!’, STEPI INSIGHT VOL. 242. p. 5.
- 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년 1월 29일) “지난해 벤처투자자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 4) Cardullo, “Technological Entrepreneurism : Enterprise Formation, Financing and Growth”, 1999.
- 5) 김창수, ‘COVID-19와 금융시장’ 발표자료
- 6) 삼정 KPMG,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COVID-19 Business Report, 2020.
- 7)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년 5월 4일)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 8) 신종원, ‘혁신금융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KIET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20-04, 2020.
-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2014.
- 10) 김광희,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기술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8-16, 2018.
- 11) 손수정, 임채윤, 박찬수, 황석원, 김명순,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STEPI 정책자료 2018-02, 2018.

참고문헌

- 12) 박재영,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NARS 현안분석 제98호, 2019.
- 13) 산업연구원,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활성화 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2020.
- 14) 진세희,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 정책과 이슈, 2020.
- 15) 박찬희,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2017.
- 1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2020.
- 17) 정주영, 오지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의 SAFE 도입 방안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49권 2호, 2020.
- 18)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 방안’, 2020.
- 19)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2018.
- 20) 박준, 한민, “금융거래와 법”, 2019.
-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20.
- 22) 김필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 방안의 의미’, 자본시장포커스, 2020.